

# 문화소통·성찰의 공간, 섬진강변 미술관



순천시 황전면 옛 황전북초 용림분교 건물에 자리잡은 모긴미술관.

〈모긴미술관 제공〉

## 모긴미술관 10월~6월 24일 박은수 작가 초대 개관 기념전

전종주 작가 폐교 활용 설립  
세미나·전시실·레지던시 작업실  
강좌·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현대문명 앞에 주저앉은 인간...’  
100호 이상 대작 15점 선보여

드라이브 코스로 인기를 끌고 있는 섬진강변 기차길을 따라가다 보면 구례구역 근처에서 조그만 미술관을 만날 수 있다. 지난 3월 목인(木人) 전종주(66) 전 호남대 교수가 설립한 ‘모긴미술관’(순천시 황전면 장터길 39)이다.

전 교수 호에서 이름을 따온 ‘모긴미술관’ 건물은 순천 황전북초 용림분교(2011년 폐교)였다. 평소 미술관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전 교수는 강변에 자리한 용림분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시원한 바람이 부는 섬진강이 인근에 있어 에너지가 넘친다는 느낌이 들었다. 특히 여수에서 태어난 전 교수는 순천에서 학교를 다녀 순천은 고향이나 다름 없었다.

전 교수는 올해 정년 퇴임을 맞았다. 서예가 원곡(原谷) 김기승을 사사한 그는 호남대 미술학과와 조선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약 40년 간 서예가, 한국화가의 길을 걸었다. 전남예술인총연맹 회장, 남도서예협회 이사장, 문화재 전문위원 등을 역임하며 넓은 예술인생을 살았다.

정년을 맞아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고향 사람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용림분교에 미술관 터를 잡았다.

미술관은 전체 860㎡(260평), 2층 규모다. 분교인 까닭에 건물 자체는 크지 않다. 각 층은 165㎡(50평) 크기다. 1층은 세미나실·자료실·사무실로 사용하고 2층은 전시공간이다.

건물 뒤편에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 수장고, 레지던시 작가 작업실을 조성했다. 전남등록사립미술관과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에도 등록해 정식 미술관 면모를 갖췄다. 관장은 지역에서 큐레이터로 오래 활동한 이유정씨가 맡았고 전문 학에서 2명도 채용했다.

미술관은 전시 뿐 아니라 지역민들의 문화 소통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전 교수는 “인문학과 예술의 접맥”을 주제로 인문학 강좌를 열고 있으며 한글학교, 미술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또 운동장에 텃밭을 조성해 어린이 대상 체험 프로그램도 기획했고 구례구역과 연계한 문화행사도 올해 두 차례 열 예정이다.

전 교수는 “미술은 소통이다. 지금까지 외골수처럼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과 문화적인 소통을 하자는 생각이 들었다”며 “단순히 글과 그림이 좋은 작가보다는 묵묵히 자기 성찰을 하며 이야기를 풀어내는 작가들을 발굴하고 소개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자기 성찰’이 숨어 있는 미술관 설립 이념에 따라 전시도 이에 맞춰 꾸려나갈 방침이다. 지난 3월 한달간 서로 다른 재료로, 또는 기법으로 섬진강의 봄을 보여준 ‘이필동춘(異筆同春)’ 전시를 시범적으로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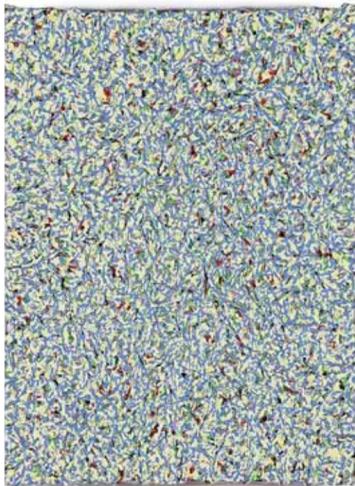
오는 10월부터는 개관 기념으로 박은수 작가가 참여하는 초대기획전을 연다. 첫 초대전인 만큼 미술관 이념과 작업이 가장 잘 부합하는 박 작가를 선정했다.

6월24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현대문명 앞에 주저앉은 인간, 그 어둠에 희망을 빛을 입히다’를 주제로 100호 이상 대작 15점을 선보인다.

9일 기자간담회에서 박 작가는 “모긴미술관 첫



목인 전종주 작가



박은수 작 'spirit-Life'

초대전이라 그동안의 예술세계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 배치했다”며 “이번 전시는 작가로서 힘을 받을 수 있는 계기다”고 말했다.

박 작가는 종이를 반죽해 캔버스에 바로 글과 굴곡을 더하는 반부조 작업을 하고 있다. 공과대학에서 재료학을 공부하며 사람 사는 이야기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작업을 연구한 결과다. 딱딱한 종이에 얇은 붓질로 수많은 색을 입혀 화려한 색감을 보여준다.

굴곡과 무수한 작은 패턴은 정형화된 도시에 대한 비판이다. 사회 규범에 얽매어 살아가지만 일상 속 마음 여유와 순수함, 꿈과 희망을 잃지 말자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박씨는 조선대 대학원에서 미술학 박사 과정을 마치고 광주와 서울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오는 7월에는 경남 마산, 12월에는 미국 마이애미에서 전시를 가질 예정이다. 문의 061-781-460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마음의 정원...’

### 정난주 개인전

11~17일 무등갤러리



▶‘마구 소리를 지르던’

꽃과의 교감을 통해 치유와 성찰을 작품에 담고 있는 정난주 작가가 ‘마음의 정원-나에게 말을 걸다’를 주제로 11~17일 무등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

정 작가가 7년 만에 갖는 두번째 개인전이다. 기법을 중시했던 첫번째 개인전과 달리 이번 전시에서는 자신을 꽃에 비유한 신작 30여점을 선보인다.

정작가는 미술심리치료사로 활동하면서 꽃이 가진 색과 빛, 평화와 자유성에 주목했다.

작품은 꽃밭이다. 붉고 노랑과, 하얀 화폭이 화려한 분위기를 풍긴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

면 꽃과 꽃 사이에 자리한 짙은 초록줄기가 눈에 들어온다. 화려함 뒤에 자리잡은 부단한 노력의 흔적들이다.

또한 ‘가슴 속 푸른 땅’, ‘눈시울 불히는 저만치’, ‘마구 소리를 지르던’ 등 작품명에서는 작가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정작가는 “꽃은 누구나 그릴 수 있다. 그러나 그대로 화폭 안으로 옮겨온 꽃은 생명력을 잃은 그림자일 뿐이다”며 “관람객들이 꽃과 교감을 나누며 꿈과 힘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62-236-252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양나희 개인전 10~16일 서울 G&J 광주·전남갤러리



▶‘살-평경’

골판지를 활용해 사라져가는 풍경을 작품에 담고 있는 양나희 작가가 ‘살-평경’을 주제로 10일부터 16일까지 서울 G&J 광주·전남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

양 작가는 이번 전시에는 재활용 골판지와 전통유화기법을 혼합한 부조 형식 풍경화 30점을 선보인다.

작가는 광주·전남을 비롯한 서울, 부산 등 전국 달동네와 재개발 지역 등을 돌며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작업하고 있다. 버려진 종이골판지를 수집해 자르고, 잘려진 골판지들을 이어 붙여 종이부조 회화 작품으로 재탄생시킨다.

‘살-평경’ 시리즈는 도시 전경이나 마을의 한 부분을 표현했다. 작은 종이조각을 사용한 섬세한 묘사로 사실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골판지 자체 황토빛을 활용해 따뜻한 느낌을 연출한다.

또한 ‘밤의 연가’ 시리즈를 통해 버려지거나 잊혀져서는 안 될 소중한 가치에 대해 이야기한다.

양씨는 호남대 미술학과와 전남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개인전 5회와 다수 단체전에 참가했다. 2012년 남농미술대전 대상, 2016년 제2회 지도갤러리 공모전 대상 등을 수상하고 2015년 중국 북경 99미술관 국제레지던시에 참여했다. 문의 02-725-004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열린책들 ‘죄와 벌’ 등 6권 글자 크기 키운 ‘큰글자판’ 발행

출판사 열린책들은 시력 저하로 책을 읽기 힘든 노년층과 약시자를 위해 글자 크기를 키운 ‘큰글자판’ 총서를 본격적으로 발간한다고 8일 밝혔다. ‘큰글자판’ 총서는 본문 글자 크기는 기존 책보다 2포인트 큰 12포인트로 키워지만 판형은 기존 단행본 크기인 B6로 유지했다. 대신 전체 페이지

는 30% 정도 늘어났다. 책 가격은 1000원 비싼 1만4800원으로 책정했다.

열린책들은 ‘죄와 벌’(전 2권)과 ‘항수’, ‘그리스인 조르바’,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셀을 할 줄 아는 까막눈이 여자’ 등 6권을 ‘큰글자판’으로 발행했다. /연합뉴스

# 불치의 질병!! 원인을 바로 알면 방법이 보인다!!!

- 본인 또는 부모가 모든 가능성을 열고 찾으시면 길이 보입니다.-



### 일광스님은

오로지 천지인(天地人)의 궁극적 이치를 깨우치기 위해 전국 산하를 주유하면서 도(道)를 탐구해온 일광스님께서 문득 회룡의 빛을 보았으니 오대산의 한 토굴에서였다. 인간의 생로병사와 사후세계가 우주 자연의 인과의 법칙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고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이후 일광스님은 불치환자들의 병의 근원을 보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을 불치병으로 평생 명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구제의 길을 열어주고자 한다.

## [정보홍수의 시대 바로 알고 노력하면 하늘도 도와줍니다.]

부처님 경전에 인간의 병에는 세가지가 있으니, ① 지수화풍의 불균형, 즉 생활습관이나 음식의 문제로 생기는 병 ② 귀신으로 인한 병 ③ 전생의 업으로 인한 병이 그것이라 했다.

이에 일광스님은 말한다. “지수화풍에 의한 병은 의사가 고칠 수 있으나, 귀신으로 인한 병이나 업으로 인한 병은 오로지 도통한 도인만이 가능합니다”

- 정신질환자(병의된 경우가 80%로 추정됨)
-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꿈에 죽은 사람이 자주 보이고 가위눌림에 시달리는 분
- 음식을 잘 못먹고 몸은 아픈데 병원의 진단에는 이상없는 분
- 원인 모를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루게릭병, 간질병, 희귀병 환자 등 불치병
- 8세 미만의 자폐증, 뇌성마비, 지적장애인, 다운증후군 환자

환자 및 가족에게 약사보살님의 가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약사암 T. 02)741-7679, 743-7679